

# 고속도로 무법자 '화물차'

### 지난해 호남권서 불법 행위 1000여건 적발...10대 중 6대 달해 4년 간 고속도로 사망 83명 중 42명 '화물차 사고'...대책 시급

지난해 1년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를 달린 화물자동차 중 불법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10대중 6대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구조변경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관련 사고로 확인돼 '달리는 무기'인 화물차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단속은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체 이뤄졌으며 호남권 고속도로 내 틀게이트, 휴게소, 과적검문소 등지에서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행위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차로이탈경보장치-운행기록장치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 및 조작 여부, 적재화를 이탈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218대를 점검해 736대에서 102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등화 장치 관련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뒷면에 반사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315건 적발됐다.

추돌 시 화물차 적재함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밀고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 하단에 설치해야 하는 '후부 안전판' 불량 건수도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구조변경 사례도 83건 적발됐는데,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했거나 화물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 과적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를 조작한 경우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꼽혔다.

또 번호판 불량 46건, 타이어 관리 불량 22건, 측면 보호대 불량 12건, 불법 부착물 7건 등이 적발됐다.

공단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차량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 계도했으며, 사

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은 566명이었으며, 이 중 42%인 237명이 화물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83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인 42명이 화물차 사고로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공단은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사업용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8명으로, 비사업용 0.95명에 비해 3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법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물류의 급격한 증가로 화물차의 물품 적재장치 개조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폭설 속 뒤엉킨 차들 15일 강원도 평창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 도로가 폭설이 내린데다 등산객을 싣고 온 관광버스와 운행하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막혀 차량이 꼼짝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개인 일기·여성 서사 연구 이뤄져야"

조선대-5·18기념재단 학술집담회

향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구는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개인의 일기, 여성 서사 등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3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이 5·18기념재단과 함께 개최한 '5·18 연구, 남은 과제들' 학술집담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노영기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5·18뿐 아니라 한국근현대사의 사료(史料)로서 일기를 발굴해 '역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동안 5·18 연구는 주로 사실 규명·이해에 집중돼 구체적·미시적인 연구가 부족했으며, 개인이 5·18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일기는 광주·전남 지역의 사람들이 5·18을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며 "일기에 근거한 연구는 그간 연구에서 조망 받지 못한 '역사 속의 개인'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개인의 일상이 역사의 일부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18에서 여성의 서사가 주변부화 되거나 배제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부터 간접 의심을 받았던 여성 등 여성 폭력 기록이 5·18 서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5·18의 이름으로 누군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역사적 장소를 독점하는 동안 여성들은 현장에서 함께했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억을 나누는 최소한의 장소조차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5·18 기억과 기록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홍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는 "5·18 기록물 다수는 원본이 각각의 소장기관에 분산된 상태"라며 "통합적 기록 보존이나 협력적 기록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섭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18 기록을 세속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 연구원은 "5·18의 기억을 직접 피해자인 국가 유공자만의 기억으로 한정하고 있어 5·18 이후 세대를 구경꾼이자 소비자로만 전락시켰다"며 "다음 세대를 기억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옛 전남도청을 등향할 유산의 복원 과정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기억을 생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불청객' 갱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

### 해수부 전남 인근 해역 등 모니터링 강화

최근 갱생이모자반이 신안군, 진도군 일부 섬 해상에서 발견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따라 각 기관은 갱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15일부터 해양 관측위성, 어업지도선, 해상합정·항공단 등을 활용해 기원지로 추정되는 동중국해와 서해 전역, 제주도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갱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 한편 농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처리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갱생이모자반이 양식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상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갱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갱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상시설 설치 시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잉어 사냥하는 광주천 수달

### 2010년 서식 확인 후 종종 발견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천 역새밭에서 수달이 잉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담겼다고 15일 밝혔다.

수달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으며 지난 2010년께 광주천에서 처음 서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를 대표하

는 야생동물 중 하나로,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생연수권대회 마스코트로도 선정됐다.

수달은 야행성으로 낮 시간대에 관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께도 광주천에서 수달 4마리가 물장구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수달들은 수면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잠수하며 광주천을 유유히 돌아다녔다.

영상을 촬영한 류지용(43·광주시 북구 우산



둥)씨는 "출근하는데 광주천에서 뭔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며 "처음엔 잉어떼가 모여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달 네 마리가 돌씩 짝지어 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형일: 2023. 1. 9(월)

### 대학원 추가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형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